

- 주요 뉴스: 6월 FOMC, 금리 동결. 점도표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
 - 미국 트럼프, 이란과 대화 가능하며 공격 여부는 미확정. 이란은 항전 의지 피력
 - 영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보합.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을 예상
 - 중국 인민은행, 금융부문 중점 정책 발표. 디지털 위안화 운용 확대 등을 포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6월 FOMC 결과, 트럼프의 이란 관련 언급 등이 영향
 - 주가 약보합[-0.03%], 달러화 강보합[+0.04%], 금리 강보합[+0.00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6월 FOMC 등으로 보합권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한 매물 출회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6월 FOMC에서 연내 금리인하 필요 없다는 의견 증가 등이 원인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내 2회 금리인하 기대, 중동 불확실성 지속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의 중동 개입 가능성에 따른 갈등 증폭 우려 등으로 4bp 하락
- ※ 뉴욕 1M NDF 종가 1372.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5.4원, 0.44% 상승). 한국 CDS 상승

		6/18일	6/17일	전일대비			6/18일	6/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80.9	5,982.7	-0.03%	국채 금리 10y	미국	4.39%	4.39%	+0bp
	유럽	540.33	542.26	-0.36%		독일	2.50%	2.54%	-4bp
	중국	3,388.8	3,387.4	+0.04%		영국	4.50%	4.55%	-5bp
	일본	38,885	38,537	+0.90%	CDS 5y	한국	28bp	27bp	+1bp
	한국	2,972.2	2,950.3	+0.74%		중국	50bp	49bp	+1bp
	달러지수	98.86	98.82	+0.04%	위험 지표	EMBI+	-	374	-
환율	유로화	1.1480	1.1480	+0.00%		VIX	20.14	21.60	-6.76%
	엔화	145.13	145.29	+0.11%		WTI유	75.14	74.84	+0.40%
	위안화	7.1895	7.1868	-0.04%	원자재	구리	485.3	480.9	+0.91%
	원화	1,369.4	1,362.7	-0.49%		금	3,369.4	3,388.1	-0.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6월 FOMC, 금리 동결. 점도표는 연내 2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

- 연준은 FOMC에서 현행 금리(4.25%~4.50%)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축소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발표. 성명서에서는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이에 필요 시 연준의 주요 책무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
- 경제전망요약에서는 금년과 내년의 GDP 성장률 전망을 1.4%, 1.6%로 제시, 이전(각각 1.7%, 1.8%) 대비 하향 조정. 반면 PCE 물가의 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각각 2.7%→3.0%, 2.2%→2.4%)했고, 근원 PCE 물가의 경우도 상향(각각 2.8%→3.1%, 2.2%→2.4%). 실업률 역시 상향 조정(각각 4.4%→4.5%, 4.3%→4.5%)
- 점도표는 이전과 같이 연내 2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나타냈고, 연말 금리는 지금보다 0.5%p 낮은 3.75%~4.0%가 될 것으로 전망. 다만, 연내 금리인하가 필요 없다는 위원의 수는 증가(4명→7명). 내년, 내후년에는 각 1회의 금리인하를 예상
- 파월 의장은 회견을 통해 관세가 물가 및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나 여름 이후 가시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연준이 당분간 관망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
-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관망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NAM). 일부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연내 2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비둘기파적이라고 진단(Goldman Sachs).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이 증가한 점에 주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이란과 대화 가능하며 공격 여부는 미확정. 이란은 항전 의지 피력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언. 다만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도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밝혀 협상도 가능하다는 신호 발신. 다만, 이날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민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서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결. 국채 수요 증가 및 달러화 지위 유지에 긍정적

-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제를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상원에서 통과. 향후 하원의 심의 및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정식 법안으로 발효.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향후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화 위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영국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보합.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을 예상

-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3.4% 올라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고,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 다만 이번 결과로 인플레이션은 8개월 연속 목표(연율 2%) 상회.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이번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영란은행은 5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
- 한편 이날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p 인하.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전망을 고려할 경우 연내에 1회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피력

■ 중국 인민은행, 금융부문 중점 정책 발표. 디지털 위안화 운용 확대 등을 포함

- 인민은행의 판공성 총재는 금융부문 8대 중점 목표를 공개. 구체적으로 은행 간 시장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행 간 채권·화폐·파생상품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금융시장 관리 감독을 지원),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 설립(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운영과 금융시장 업무 추진) 등을 시행할 방침

■ 일본 5월 수출, 對美 수출 부진 등으로 8개월 만에 감소. 4월 기계수주도 저조

- 5월 무역수지가 6376억엔 적자를 기록.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對美 수출이 부진했으며, 이에 전체 수출도 8.13조엔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 관세 영향에 따른 자동차 수출 단가 인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
- 경기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기계수주 역시 4월에 전월비 9.1% 감소.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 휴장, 영란은행 및 스위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증시 투자자들의 지정학적 위험 외면, 시장 역학에 대한 합리적 판단 - The Economist (Investors ignore world-changing news. Rightly)

-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S&P500지수 선물이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하여 사상 최고 수준까지 회복. 이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시장 신조와 투자자의 지정학적 위험 경시를 반영. 이러한 모습은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 판단일 소지
- 첫째, 최근 50년간 세계적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주가 변동성은 평상시의 3배에 불과. 이에 주가에 미친 영향도 예상보다 제한적.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확한 가격 반영이 어렵고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 셋째, 양호한 기업 실적과 소비 지출 등이 리스크를 흡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실물경제 혹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

■ 이스라엘의 對이란 전쟁, 중동 재편 등 보다 광의적 의미의 3가지 목표 내재 - 블룸버그 (Israel's War With Iran Isn't One Conflict. It's Three.)

-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 갈등 해소 국면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다음의 3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일 가능성. 첫째, 이스라엘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중동 재편. 구체적으로 국방력 강화 및 세력 확장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고 자국을 재건하려는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유도
- 둘째, 중동의 핵 확산 위험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위태로워진 핵 비확산 체제 수호. 셋째, 이란 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 중국 등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국가들간의 동맹 강화 차단. 이를 감안할 경우 전쟁의 중요성 및 위험성이 크기에 미국 트럼프의 개입 수위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

■ 연준의 점도표, 정확성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재검토 필요 - WSJ

(The Fed's Dot-Plot Predicament: False Precision in Uncertain Times)

-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점도표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지만 점도표는 최근과 같이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일례로 '24년 6월 점도표는 연 1회의 금리인하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9월부터 100bp 인하가 단행
- 연준 내부에서도 점도표가 시장에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다며 비판이 제기. 이에 대안으로 중간값은 생략하고 중심 경향(Central Tendency)만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 이는 중간값에 대한 시장의 집착으로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기 위한 조치

■ **금융시장에서의 미국 예외주의, 이전보다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건재 - Financial Times**

(US exceptionalism in markets is diminished - but far from dead)

- 최근 정책 불확실성과 부채 증가에 따른 달러화 약세 및 장기금리 상승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이 확산. 그러나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이자 장기성장 및 기업 수익성의 동력인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선도. 팬데믹 이후 민간부문 생산성은 연 2% 이상 성장했는데 이는 유럽·일본 보다 월등
-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과 유로존의 경기회복 등으로 생산성 우위가 축소될 소지. 이러한 여파는 주식보다는 자본 이동과 금리 차에 민감한 달러화 항행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 향후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이외 선진국 주식의 매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성이 우수한 미국 기업의 주식은 계속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남을 전망

■ **미국 트럼프 외교정책, 동맹국 위협·협정 탈퇴 등으로 세계적 위험 증폭될 우려 - 블룸버그**

(The US Is Making the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 **미국, 중국과의 무역 휴전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쟁력·동맹 강화 등이 요구 - 블룸버그**

(US-China Trade Truce Is a Cautionary Tale)

■ **미국 빅테크, 공화당에 맞서 친환경 에너지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선 - 블룸버그**

(Big tech is green power's best defense against GOP)

■ **조기의 연준 의장 지명, 통화정책 혼란·독립성 훼손에 시장 혼란 초래할 소지 - Reuters**

(Early Fed chair nomination could rattle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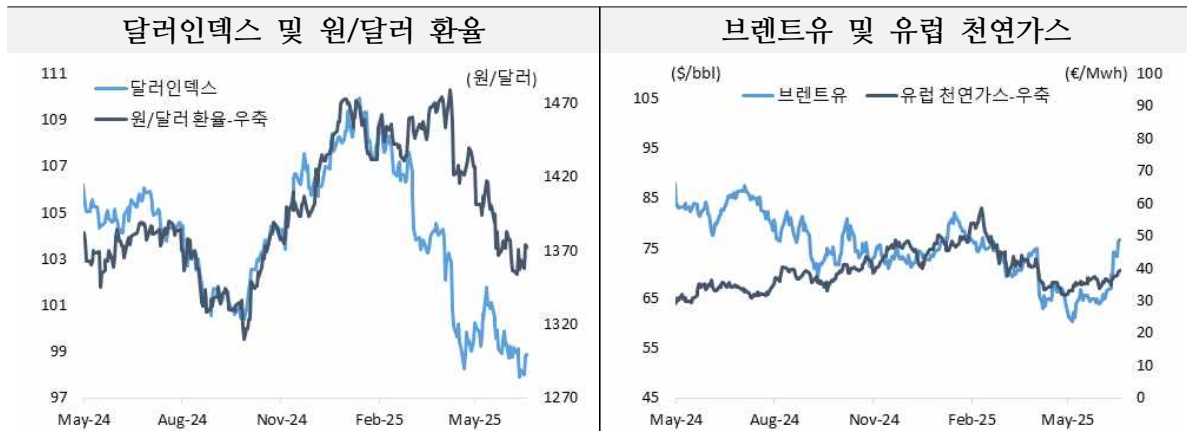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양적긴축 속도 조절, 자본의 해외 유출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 - Reuters**

(BOJ caution could keep Japanese capital oversea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